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3-지역이슈-2(2023.3)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동향과 한국의 협력 방안



CONTENTS

- I.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동향
- II. 우즈베키스탄의 중단기 발전 전략과 주요 내용
- III.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의 발전 전략
- IV. 한국의 협력 방안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요약 >

I.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동향

- 주요 정치·경제 이슈: 2022년에는 헌법 개정 추진과 이로 인한 카라칼팍스탄의 대규모 시위, 키르기스와의 국경 확정 등의 주요 대내외 정치적 이슈가 있었으며, 경제 이슈로는 EU와의 EPCA 체결, 제1회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 개최 등이 있었음.
- 경제 현황: 우즈베키스탄은 2022년 글로벌 경기둔화 가운데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했음. 반면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II. 우즈베키스탄의 중단기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2026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을 통해 7개 분야에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7대 중점 발전 분야는 시민사회, 사법, 경제, 사회, 종교, 대외문제, 대외정책에 관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발전, 지역공동체인 마할라(Mahalla)의 활성화, 종교(이슬람)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 강조, 실용적 대외관계에 대한 강조 등이 새로운 발전전략의 주요 특징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2023년 대통령 국정과제를 통해 작은 정부, 천연가스 생산 증대, 대중교통 개선, 재산권 보호 등을 강조하였음.

III.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의 발전전략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디지털, 자동차, 신재생 분야에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2030 전략"을 통해 인터넷 인프라 개선, 전자정부 발전, 민간통신 사업자 육성을 추진함. 이러한 정책에 따라 ICT 기업의 수는 2016년의 6,370개에서 2022년에는 10,587개로 증가했으며, ICT 부문 인력도 2016년의 33,413명에서 2022년에는 53,782명으로 증가했음. 또한 Open Data Watch의 '국가별 공공데이터 개방도' 순위가 2020년의 세계 44위에서 2022년에는 40위로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자동차 산업 2025 발전전략"을 통해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증대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전체 자동차 생산의 15%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에는 중국 전기차 생산기업인 BYD와의 협력을 통한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함.
- "신재생 2019~2030 전략"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음.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5%로 증대하고, 가스화력 발전 비중을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UAE MASDAR 등과의 협력을 통해 나보이, 사마르칸트, 지작, 수르한드리야 등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별 발전전략에 따라 중국과 인도, UAE·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기업들이 디지털, 자동차, 신재생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IV. 한국의 협력 방안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라시아 지역의 안보 위협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역내 협력이 활발하며, 교역·투자·물류 등의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이나 같은 이슬람권인 중동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중앙아시아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 EU와의 협력 확대 등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기존의 정책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종내륙국으로 교통·물류 환경이 열악한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물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 교통·물류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산업·자동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부문에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발전전략과 2023년 대통령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보건·환경 부문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문에서의 협력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I.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 동향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동향

- (개헌 일정을 2023년으로 연기)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는 당초 2022년 가을에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2023년으로 연기되었음. 국민투표 연기는 북서부 아랄해 남단에 위치한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의 대규모 시위*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개정 헌법의 초안에는 주요 정치적 사안인 대통령 임기의 5년에서 7년으로의 연장 조항과 함께 재산권과 토지 소유권 등 국민의 기본권 강조, '미란다 원칙' 고지를 통해 범죄 용의자들의 권리 보장, 사형제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외에 자치공화국의 지위 변경*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내용은 2022년 7월 1~2일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에서 대규모 개헌 반대 시위가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하고 비상사태가 선포된 여파로 인해 삭제되었음.
- * 자치공화국의 자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에 대해 카라칼팍스탄의 수도 누쿠스(Nukus)에서 2022년 7월 초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여 진압 과정에서 경찰 4명을 포함하여 21명이 사망하고 27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라칼팍스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비상사태 기간은 당초 2022년 7월 3일부터 8월 3일까지였으나, 상황의 안정으로 7월 21일에 조기 해제되었음.¹⁾

[표 1] 우즈베키스탄의 2022년 주요 정치 및 경제, 대외관계 동향

이슈	주요 내용	특징
개헌 추진	- 대통령의 임기 연장, 재산권 및 토지 소유권 강화, 사형제도 금지, 카라칼팍스탄의 자치권 축소 등	-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2023년으로 연기
카라칼팍스탄 시위	- 자치권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21명이 사망하고 270명 이상의 부상자 발생	- 비상사태 선포: 당초 한 달 동안 지속될 예정이었으나, 정국 안정으로 조기 종료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 간의 국경 획정	- 국경을 획정하고, 쟁점이 되었던 국경 지역의 저수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 - 국경 획정을 위해 양국 토지 교환	- 양국 간 국경 문제는 소련 해체 이후 지속되었으며, 양국 간의 협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 - 2017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협상 진행
우즈베키스탄-EU EPCA 체결	- 1996년 체결된 PCA를 대체: 대외정책, 분쟁 조정, 국경 조정, 불법 이민, 반부패 등으로 협력 확대 및 강화	- 2019년부터 3년 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
제1회 타슈켄트 국제포럼 개최	- 국제금융기구의 총재, 외국 관료 등 56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여 78억 달러의 투자계약 체결	- 우즈베키스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UAE의 에너지인프라부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부 장관 참석

- (키르기스와의 국경 획정)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 외무부 장관은 2022년 11월 초 국경 획정에 합의하였으며, 2023년 1월 초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키르기스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에서 국경 획정 합의서에 서명하였음.

1) <https://www.aljazeera.com> 2023.1.31.



- 1,379km의 국경을 공유하는 양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302.2km에 대한 국경을 획정하고, 주요 쟁점이었던 캄피르-아바드 저수지(Kempir-Abad reservoir) 또는 안디잔(Andijan) 저수지를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였음. 양국은 저수지 공동운영을 위해 저수지 주변 지역의 키르기즈 토지 4,957헥타르와 국경 주변에 산재된 우즈베키스탄 토지 12,849헥타르를 맞교환하는 데 합의하였음. 이 저수지는 대부분 키르기즈 영토에 속해 있으나, 그동안 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용해 왔음²⁾

우즈베키스탄 내의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 카라칼팍스탄은 우즈베키스탄 내의 소수 민족인 카라칼팍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자치공화국으로 운영되고 있음.
- 카라칼팍스탄의 인구는 약 200만 명으로 우즈베크인의 비중은 32%에 불과하며, 카라칼팍인과 카자흐인 등 소수민족들이 대부분임. 카라칼팍스탄의 인구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6% 정도이나, 영토는 전체 국토의 40%에 달함.
-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카라칼팍스탄 독립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1993년의 우즈베키스탄 헌법은 카라칼팍스탄에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부여하여 독립 문제는 봉합된 바 있음.
- 카라칼팍스탄은 민족적으로 투르크계이며, 자체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 언어적, 문화적으로 우즈베키스탄보다 카자흐스탄에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짐.
-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내에는 환경 문제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랄해가 위치해 있음.
- 사막 지역으로 아랄해 고갈과 토양의 염분농도 상승 등 환경 및 수자원 문제, 주민의 건강 악화 등이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림 1] 카라칼팍스탄 자치공화국 지도



자료: www.theguardian.com

- 카라칼팍스탄은 타슈켄트 시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의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2021년 기준 카라칼팍스탄의 지역총생산은 우즈베키스탄 전체 GDP의 3.6%에 불과함. 또한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됨에 따라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2) <https://thediplomat.com> 2023.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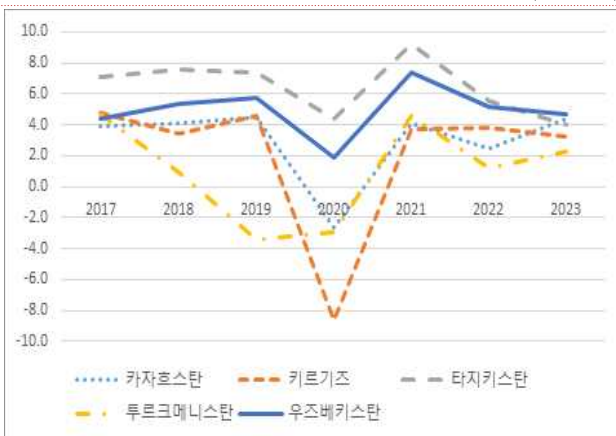


경제 동향

-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와중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나,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경제성장률은 2021년 7.4%, 2022년 5.2%를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중앙아시아 5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임. 다만, 동시에 2021년 이후 10%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2]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IMF

[그림 3] 중앙아시아 각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자료: IMF

[그림 4]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단위: %)



자료: IMF

[그림 5] 중앙아시아 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

(단위: %)



자료: IMF

-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액은 2022년에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교역 증가율도 2021년 12.7%, 2022년 13.1%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과 해외로부터의 차입액은 2017년 25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85억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자금이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7%에서 35.4%로 증가하였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는 2017년 5,517개에서 2022년에는 15,801개로 약 3배 수준으로



로 증가하였으며, 부문별로는 유통 30,5%, 제조업 27,5%, 건설업 8,0%, 농업 4,8% 등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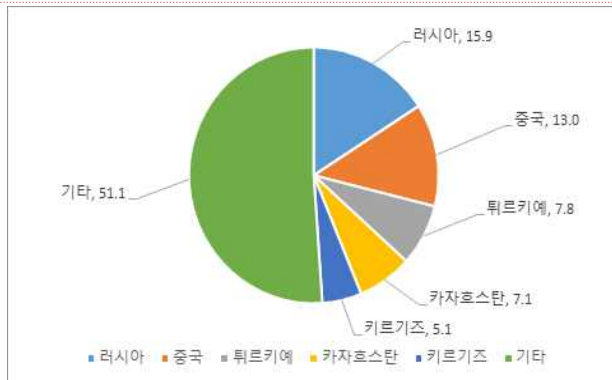
[그림 6]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액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그림 7]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국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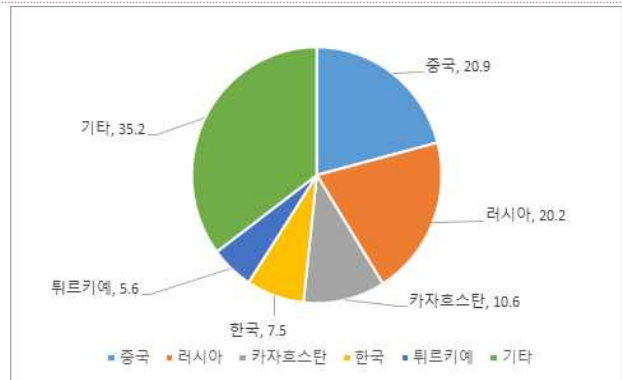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그림 8]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입국별 비중

(단위: %)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 2022년 3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1회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했으며, EBRD 총재, ADB 총재, WTO 부총재, AIIB 부총재 등 국제금융기구 관계자들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장관 등 외국관료들이 참석하였음. 세계 56개국에서 2,000명 이상의 고위급 인사와 투자자들이 참석하였음.⁴⁾
-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국제투자포럼을 통해 78억 달러의 투자협약서와 계약이 체결되고,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사전 합의가 진행되었다고 발표함.
- 2022년 2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3국을 연결하는 전체 연장 750km의 철도 건설에 합의하였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철도 건설의 전체 투자비는 50억 달러 규모이며,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로 역내 연결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

3) <https://central-asia.news> 2023.2.8; <https://upl.uz> 2023.2.6.

4) <https://www.president.uz> 2022.3.24.



스탄-파키스탄 간의 교역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발표함.⁵⁾

-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화물이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여 파키스탄 주요 항구들인 카라치(Karachi), 과다르(Gwadar), 카심(Qasim)항으로 연결되며, 이를 통해 이중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의 해양으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철도 건설을 위한 투자 유치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나 국제금융기관들이 자금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림 9]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연결 철도



자료: <http://inozpress.kg>

대외관계 동향

- EU와의 관계는 제도적 협력 강화와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음.
- (제도적 협력 강화) EU와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EU 협력위원회(2022년 6월 18차 회의 개최)를 통해 상호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음. 양측은 2019년부터 시작된 3년 간의 협의 끝에 2022년 7월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확대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를 체결하였음.⁶⁾ 이는 1996년에 체결된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를 대체한 것으로, 양측 간 협력이 확대 및 강화되는 것을 의미함. 양측의 협력은 EPCA를 통해 대외정책, 분쟁 중재, 위기관리, 국경 조정, 불법이민이나 조직범죄 대응, 반부패, 대테러리즘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 (교역 확대 추진)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4월부터 EU의 특혜관세제도인 GSP+(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Plus)⁷⁾를 적용받아 2024년부터 6,200여개 품목을 EU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

5) <https://uz.sputniknews.ru> 2022.3.29.

6) <https://www.ankasam.org> 2022.11.4.

7)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질의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EU의 관세우대 조치로 인권, 노동권, 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27개 국제조약을 이행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은 6개의 새로운 조약에 가입해야 함.



있음.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외경제개방정책으로 WTO 가입을 추진하며 EU와의 경제협력 또한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투자) 2023년 2월 기준 1,052개의 EU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4개 기업은 EU 기업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⁸⁾
- 중국과의 관계는 교역 및 투자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협력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교역 및 투자 확대) 중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교역 및 투자국으로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중국과의 교역규모는 2021년 74.4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1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중국의 대 우즈베키스탄 투자액은 전체 외국인투자의 16.4% 비중으로 러시아에 이어 2위를 기록함.⁹⁾
 -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협력) 중국 기업은 타슈켄트와 지작에 2024년 완공을 목표로 2,000MW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2022년 2월에는 중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카슈카다리아, 부하라, 사마르칸트 주에 2,000MW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¹⁰⁾
- 러시아와의 관계는 정치 협력 확대와 러시아 내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의 송금이 주요 이슈임.
 - (정치 협력 확대)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체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외교적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지지하며, 서방의 對 러시아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러시아 주도 EAEU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EAEU의 옵저버국으로 가입했고, 2022년 7월에는 추가 협력 분야에 서명하는데 이어 2023년에는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우즈베키스탄의 송금유입액에서 러시아에 취업 중인 자국 노동자들로부터의 송금액이 80%(2022년)를 점유하고 있음.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액 규모는 GDP의 17.1%(2022년 기준)에 달하며, 이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즈 다음으로 높은 비중임.
 - * 러시아 내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으며, 2021년 기준으로 450만 명에 이르고 있음. 이어 타지키스탄인 240만 명, 키르기즈인 90만 명 등임.
 - (투자 및 교역) 2022년 러시아는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 및 투자국임. 양국 교역액은 92.8억 달러로 전체 우즈베키스탄 교역액의 18.6%를 점유하였으며, 러시아의 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의 20.3%를 점유함.¹¹⁾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음.
 - (정치) 2018년 처음 개최되어 2023년 4차까지 진행된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여하며 역내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생한 가운데 2022년 7월 키르기즈의 출판-아타(Cholpan-Ata)에서 개최된 4차 회의에서는 역내 최대 현안인 에너지 및 안보 협력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음.
 - 이 회의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논의를 통해 '21세기 중앙아시아의 발전을 위한 우호, 근린, 협력 조약(The Treaty of Friendship, Good-Neighbourliness and Cooperation for Development of

(<https://trade.ec.europa.eu>; <https://miit.uz>)

8) <https://www.eureporter.co>

9) 2022년 주요 국가별 외국인 투자 비중은 러시아 20.3%, 중국 16.4%, 튀르키예 10.1%, 독일 6%, 사우디아라비아 6%, 미국 3.8% 등임. <https://upl.uz> 2023.2.19

10) <https://russian.eurasianet.org> 2023.2.22.

11) <http://www.finmarket.ru> 2022.2.20. 2023년 1월 기준 러시아 투자기업의 수는 3,156개로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약 20%를 차지하며, 2023년 2월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투자규모는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음.



Central Asia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라는 성과를 도출함. 이 조약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 동반자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3개국 대통령이 조약에 서명하였으며,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도 자국 내에서 논의를 거쳐 추후 조약에 서명할 것을 약속하였음. 이 조약은 향후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 간 협력의 주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교역액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교역에서의 비중도 2020년의 15.0%에서 2021년에는 16.9%, 2022년에는 17.2%로 상승하고 있음.

[표 2]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주요 의제

시기	개최지	참석	주요 의제
1차 (2018년 3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투르크메니스탄 제외 모든 국가 대통령	- 역내 교역 및 경제협력 -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
2차 (2019년 11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카자흐스탄 제외 각국 대통령 참석(카자흐스탄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참석)	- 공통의 역사적, 문화적 유산을 토대로 협력 확대 - 기후변화 대응
3차 (2021년 8월)	투르크메니스탄 아바자	각국 대통령 참석	- 코로나19 대응 - 아프가니스탄 사태 대응
4차 (2022년 7월)	키르기즈 출판-아타	각국 대통령 참석	- 에너지 및 안보 협력 - 교통 및 물류 협력 -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 합의안' 서명

[그림 10] 우즈베키스탄의 대 중앙아시아 교역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II. 우즈베키스탄의 중단기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2022~2026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 (목표) 2022년 2월 발표된 “2022~26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 및 경제 발전, 국제사회와의 협력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7개 분야에서 100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7대 중점 발전 분야는 시민사회, 사법, 경제, 사회, 종교, 대외문제, 대외정책이며, 경제 및 사회 분야 등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제시되었음.
- 시민사회 발전, 지역공동체인 마할라(Mahalla)¹²⁾의 활성화, 종교(이슬람)와 환경에 대한 중요성 강조, 실용적 대외관계에 대한 강조 등이 새로운 발전전략의 주요 특징으로 평가됨.

[표 3] “2022~26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발전전략”의 7대 주요 국가 전략 방향

항목	내용	관련 지표
시민사회	인간의 명예 및 존엄성 고양과 자유로운 시민사회 발전	- 전자정부 서비스 100% 제공 - 각 지역의 마할라 활성화(역할과 기능 강화)
사법	정의와 법에 따른 국정 운영	
경제	경제발전 가속화와 높은 성장률 보장	- GDP 1,000억 달러, 1인당 GDP 2,800달러 달성(2026년까지, 이후 2030년까지 4,000달러를 달성하여 세계 상위 중소득국으로 진입) - 5년 동안 외국인투자 700억 달러(그 중 PPP를 통해 170억 달러) 유치 - 수출액 300억 달러(2026년까지) 달성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5% 및 GDP 대비 재정수지 3% 이하 달성, 2023년 이후에도 유지 - 외국인 관광객 연 900만 명(관광부문에서 52만 명 일자리 창출) 달성 - 에너지 효율화 20%, 재생에너지 부문의 전력생산 비중 25%로 증대 - 농업 및 공업 부문의 수자원 소비 효율화를 통해 70억 m ³ 의 물 절약 - 상업은행의 정부 지분 매각, 민간 지분 60%까지 증대(2026년까지) - 2023년 이후 부가가치세율을 기존 15%에서 12%로 인하
사회	정의로운 사회정책 추진, 인적 자본 발전	- 취학 전 아동교육 80%(기존의 67%) 실현 - 헬스케어 부문 정부 지출 3배 확대
종교	정신적 가치(이슬람)의 새로운 단계로의 발전	- 국가 발전 관련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대외문제	국가 이익에 기반한 세계 문제 접근(환경문제, 아랄해 문제 등)	- 아랄해에 모두 250만 헥타르의 녹지대 형성 - 아랄해 지역에 GCF(녹색기후기금, International Green Climate Fund)과 GEF(지구환경기금, Global Environment Facility)가 지원하는 환경 프로젝트 추진
대외정책	안전보장 잠재력 강화, 개방적·실용적·적극적 대외정책(WTO 및 EAEU 가입 등)	- 정부의 비상사태부 내에 항공서비스부 설립 - 민간 부문에서의 방화 장비 생산 추진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역내 협력 강화

자료: <https://strategy.uz>

12) 중앙아시아의 전통적인 지역공동체를 의미하며, 종교·민족의 차이를 모두 수용하는 생활공동체라는 특징을 지님. 법적 행정구역과는 다른 단위로 존재하는 비정부 지역공동체로 최고책임자, 주민회의 등 자체적 조직을 구성하고 있음.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마할라를 통해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민들과 소통을 추진함. 강봉구, 「우즈베키스탄 ‘마할라(mahalla)’ 제도의 개혁과 성격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2008, Vol.16. No.2



- 주요 부문별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경제) 1인당 국민소득 증가, 수출 및 투자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GDP·투자·수출 증대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에너지 효율화, 민영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GDP는 2021년 692억 달러에서 2026년에는 1,000억 달러로 증가, 1인당 GDP 규모는 2021년 2,002달러에서 2026년에는 2,800달러로 증가하며, 2030년에는 4,000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상위 중소득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2026년에는 수출액이 300억 달러로 상승하고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치 및 사회) 시민사회의 발전과 법의 지배 원칙 실현을 목표로 하며, 인적 자본의 발전과 함께 종교활동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교육 및 보건 부문 환경 개선과 전자정부 발전을 계획하고 있음.
 - (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생산 증대, 농업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자원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행정부의 제1기
발전전략(2017~21년) 성과 평가¹³⁾**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2월 발표된 “2017~2021 발전전략”과 2019년 8월에 발표된 “2035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및 사회 건설, 법치주의, 경제발전, 사회 개혁, 대외안보 및 대외정책의 5대 부문에 대한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음.
 - “2017~2021 발전전략”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직후 발표된 것으로, 미르지요예프 정부 1기 발전전략이라 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르지요예프 1기 발전전략 실행을 통해 다음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발표하였음.¹⁴⁾
 - 국적 부여 절차 간소화로 7만여 명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획득했고, 교육 분야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의 수가 기존 77개에서 약 2배인 141개로 증가함.
 - 경제 분야에서는 23개 자유경제구역이 운영되어 26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3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교역규모가 2016년 201억 달러에서 2021년에는 378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대외안보에서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주요 분쟁 요인이었던 국경선 문제가 진척되어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선의 99%,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 국경선의 80%가 확정되었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2023년 국정 추진계획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3년 국정과제 연설에서 작은 정부, 천연가스 생산 증대, 대중교통 개선, 재산권 보호 등을 2023년 국정 추진의 키워드로 강조함.

13) <https://strategy.uz> 2022.2.7.

14) <https://e-cis.info>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3일 의회 연설에서 2023년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음.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GDP 800억 달러, 해외직접투자 80억 달러, 수출 190억 달러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고, 인구 3,600만, 사회적 지원금 확대, 교육 및 의료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성과를 강조했으며,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등 2022년의 대외적 성과를 언급함. 무엇보다 연설을 통해 2023년도 국정과제의 6가지 주요 방향을 언급함.¹⁵⁾
- 2023년의 6대 주요 정책 방향으로 ①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행정 시스템으로의 전환, ②‘사회국가’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건설, ③인권과 자유 보호를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명시, ④환경 보호, ⑤공정한 경쟁과 사적소유 원칙 확립, ⑥민간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이 제시됨.

[표 4] 2023년 대통령 국정과제 주요 내용

주요 정책 방향	향후 개선 필요성	해결 방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다 체계적인 국가행정 체제 - 정부 부처의 업무중복 해소 - 지방 행정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수 축소(61개→28개), 공무원 인력 축소(30~35% 감축) -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마르칸트 시와 나망간 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사회주의 국가’ 원칙에 따라 새로운 우즈베키스탄 건설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 강화 - 국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처우 개선 - 교과서 및 교재의 현대화 - 국제 교육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 개혁 - 2023년 70개 학교 신설 및 460개 학교 시설 개선, 민간 부문에서의 100개 학교 건설 개시 및 5년 이내 1,000개 사립학교 설립
인권 및 자유 보호를 국가의 헌법적 의무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행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인권보장 - 개인 재산권 보장 확립 - 부패 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선변호사 배당의 체계화 - 압수수색, 도청, 재산권 박탈 등은 검찰이 아닌 법원에서 결정
환경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환경 문제 발생. 특히, 지난 3년 간의 가뭄으로 많은 피해 발생, 지난 15년 동안 강수량 25% 감소 - 농업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다리야 강에 신규 운하 건설 - 향후 3년 동안 1만 3,000개의 물관리 시설 자동화, 16개 대규모 펌프의 현대화 - 농업 부문의 고부가가치 사업에 10억 달러 지원
시장, 공정경쟁, 사적소유의 원칙, 기업 지원 등의 내용 헌법상 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환경 개선 -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 해결 -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전국의 지역을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지원 정책 추진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투자
민간·지역·외국인투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물 생산 부문 투자 - 민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광석 처리 시설 부문에 대규모 투자 실행 - 화학, 자동차, 농업 부문에 투자 - 1,000개 기업의 민영화 실시

자료: <https://president.uz>

15)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 Mr. Shavkat Mirziyoyev to the Oliy Majlis and the People of Uzbekistan” <https://president.uz> 2022.12.20



Ⅲ. 우즈베키스탄 주요 산업의 발전전략

디지털 발전 전략

-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대통령령으로 발표된 “2030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내용) 디지털 발전전략은 모바일 광대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국민의 인터넷 이용 증가, 국민의 IT 활용능력 향상, e-government 서비스 발전, 정부의 공개 데이터 포털 확대, 데이터 센터 확대를 통한 디지털 인프라 개선, 도시 디지털 인프라 개선을 통한 스마트 도시 설립, 민간통신 사업자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¹⁶⁾
- (활용)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발전은 제조업 생산과 농업, 공공 서비스,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주요 정책 사례로 수자원 자동화 관리의 경우 카쉬카다리야(Kashkadarya) 지역의 운하 관리에 호주 기업 Rubicon Water사의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¹⁷⁾
- (IT 파크 및 IT 콤플렉스 설립)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IT 부문의 발전을 위해 2019년부터 수도인 타슈켄트를 포함하여 10개의 지역(안디잔, 페르가나, 시르다리야, 지작, 사마르칸트, 부하라, 나보이, 누쿠스, 호레즘)에 IT 파크를 운영하고 있음. 이곳에서는 IT 관련 기업의 창업과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2024년을 완공을 목표로 타슈켄트에 7헥타르의 면적에 IT 대학, IT 아카데미, IT 기숙사, 컨퍼런스 시설 등이 입주하는 17개 건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¹⁸⁾ 대외적으로는 IT 부문의 발전을 위해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과 협력하고 있음.
- (ICT 지표) 우즈베키스탄의 ICT 부문 기업 수는 2016년의 6,370개에서 2022년에 10,587개로 증가하였으며, 인력은 2016년에 33,413명에서 2022년에 53,782명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ICT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1%에서 2021년 2.6%로 상승 추세에 있음.¹⁹⁾
- (국제 지표) 우즈베키스탄은 국제비상업기구인 Open Data Watch의 Open Data Inventory(국가별 Data 개방도 순위) 평가에서 2020년 세계 44위에서 2022년에는 40위로 4단계 상승하여 정부의 공공 데이터 개방에서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²⁰⁾

16) <https://e-gov.uz>

17) <https://e-gov.uz>

18) <https://it-park.u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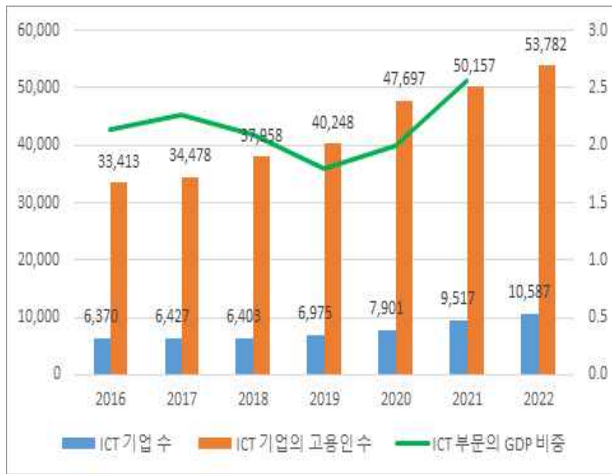
19) 이러한 수치는 아직 선진국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ICT 부문의 GDP 비중은 2022년 3/4 분기에 13%를 기록하였음. <https://www.itstat.go.kr>

20) <https://e-gov.uz> 2023.2.16.



[그림 11]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발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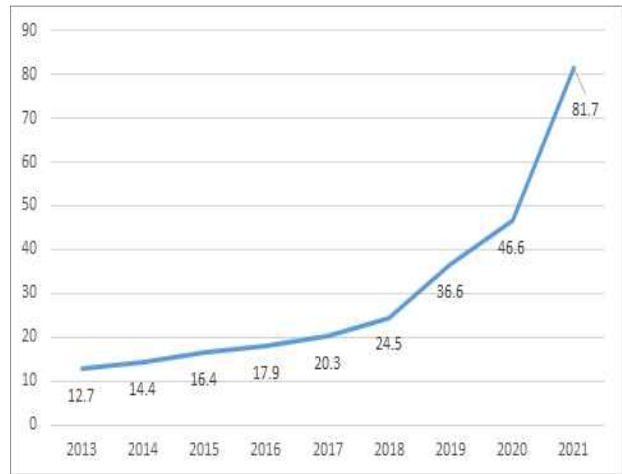
(단위: 개·명·%)



자료: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그림 12] 우즈베키스탄의 광섬유 통신망 길이

(단위: 천 km)



자료: Digital Ecosystem Country Assessment(DECA), Uzbekistan, January 2022. USAID

자동차 산업 발전 추진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9년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 2025”를 발표하였으며, 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계획은 2025년까지 자동차 생산량 30만 대, 보급률 85%, 수출규모 25,000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품 현지화 비율을 전체의 55%, 상용차의 경우 30%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²¹⁾
-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자동차 생산기업인 UzAuto사는 2023년의 생산 목표를 55만 대로 발표했으며, 향후 트랙커와 오닉스 자동차 등으로 생산 자동차 모델을 다각화할 것으로 알려짐.²²⁾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전체 자동차 생산의 15%로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등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²³⁾
- 2023년 1월 UzAuto사는 중국 전기차 생산기업 BYD와 협력을 통해 2023년부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음.²⁴⁾
-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생산량은 2020년 28만 4,885대에서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4만 1,649대로 다소 감소했으나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최근 버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1~11월 버스 생산량은 1,1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8%의 증가율을 기록함.²⁵⁾

21) <https://trans.uz> 2019.6.28.

22) 2022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Fitch사는 ‘UzAuto’사의 안정적인 생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신용등급을 기존의 B+에서 BB-로 상향조정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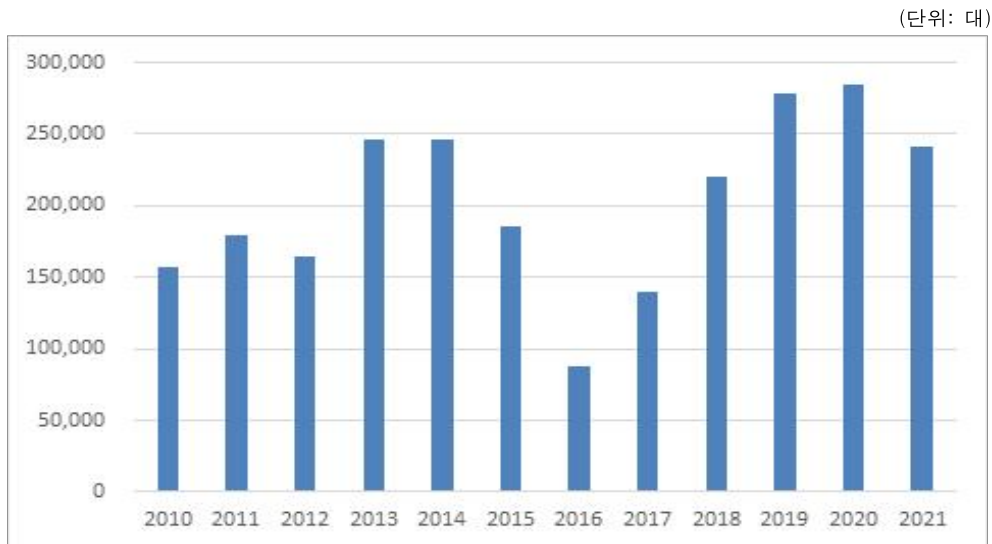
23) <https://www.gazeta.uz> 2022.12.19.

24) <https://www.electrive.com> 2023.1.9.

25) <https://www.greencarcongress.com> 2023.1.8.



[그림 13]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생산량 추이



자료: www.ceicdata.com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2019년 10월에 승인한 “2019~2030년 우즈베키스탄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전략”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추진을 천명하였음.²⁶⁾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2017년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했고, 2018년 의회에서 이를 비준하였음. 2019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의 10%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녹색경제 전략을 수립하였음.
- 이 전략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임. 나보이 주 자라프산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나망간, 부하라, 호레즘 등지에는 중국, UAE, 프랑스 기업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²⁷⁾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이외에도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화석 연료 사용 비중 감축, 2030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25% 달성, 전 국민과 기업에 대해 낮은 가격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에너지 효율성 20% 증대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 성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장비 사용, 주요 농작물 생산성 20~25% 향상 등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2022~2026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르면 향후 PPP 방식을 통해 140억 달러에 이르는 약 154개의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며, 부하라, 나망간, 호레즘, 카슈카다리야, 페르가나 등지에 태양광발전소 및 풍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임.²⁸⁾
- 우즈베키스탄은 ADB,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규모를 30GW*로 증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종류별로는 태양광발전 5GW, 수력발전 3.8GW, 풍력발전 3GW, 원자력

26) <https://lex.uz>

27) <https://eurasianet.org> 2022.12.20.

28) KOTRA 2023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발전 2.4GW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가스화력발전의 의존도를 기존의 83%에서 2030년에는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²⁹⁾

- * 2021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용량은 15.9GW이며, 이 가운데 화력발전으로 13.9GW, 수력발전으로 1.85GW가 생산됨.
-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1년에 EBRD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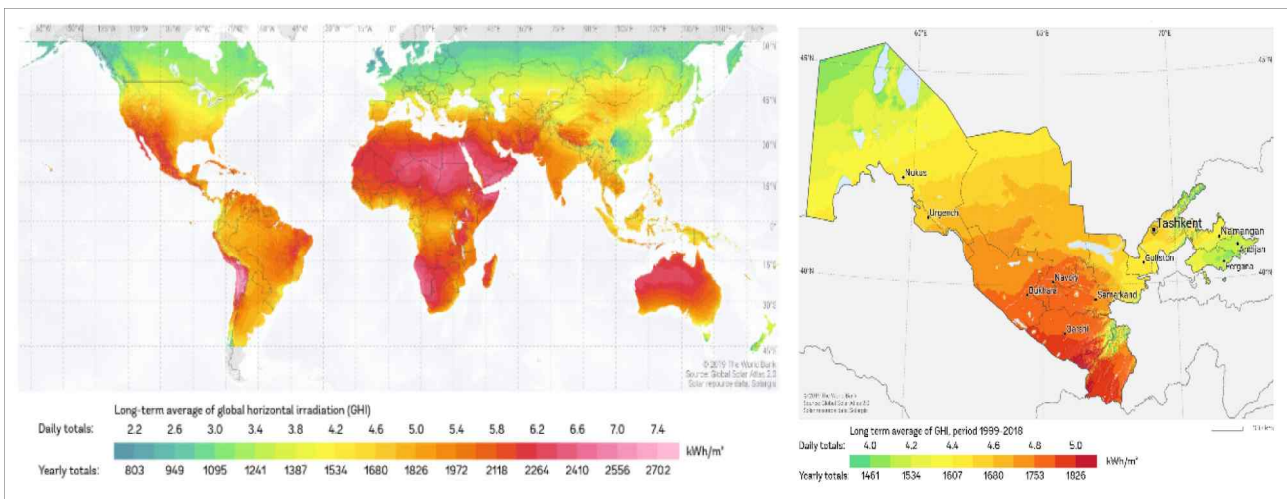
[그림 14]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 에너지 생산 계획

(단위: GW)



자료: CONCEPT NOTE for ensuring electricity supply in Uzbekistan in 2020-2030

[그림 15] 우즈베키스탄의 태양 에너지 잠재력



자료: IEA. Uzbekistan 2022 Energy policy review.

29) <https://www.enerdata.net> 2021.2.5.



[표 5] 우즈베키스탄 대규모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연도	지역	생산용량(MW)	전력공급 기간	사업자
2020년	나보이, 카마나	100	25년	UAE MASDAR
2021년	사마르칸트	100	25년	Total Eren
	나보이, 누라타	200	25년	Phanes Group
	사마르칸트	220	25년	UAE MASDAR
	지작	220	25년	UAE MASDAR
	수르한다리아, 쉐라바드	457	25년	UAE MASDAR

자료: IEA. Uzbekistan 2022 Energy policy review.



IV. 한국의 협력 방안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의 對 중앙아시아 및 對 우즈베키스탄 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EAEU, CSTO, CIS 등 자국이 주도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UN 영세중립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제외)한 기구들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점진적 영향력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에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철수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으로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 안보가 위협받고, 서방의 對 러시아 제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보적·경제적 부문에서 역내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안보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각국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역내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같은 이슬람권인 중동이나 교역·투자·물류 등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한국의 對 우즈베키스탄 협력에서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동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과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되고, 에너지·물류·IT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WTO 가입 추진을 비롯하여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8년 WTO 가입 협상을 재개하여, 2020년 15년 만에 제4차 작업반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한국은 EU, 미국 등과 함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SPS), 무역기술장벽(TBT), 지적재산권(IP) 등 WTO 가입을 위한 주요 협상 부문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정부 간의 정책 협력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교통 및 물류 부문의 협력
- 이종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물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관련된 교통 및 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부문에서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산업 부문별 협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전략적으로 발전을 추진하는 자동차·신재생에너지·디지털 산업 부문에 기술력과 경험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 (자동차) 중앙아시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전기차 생산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이 부문에서의 투자가 유망함.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장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금융기구들의



지원을 통해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이 부문에 진출할 수 있음.

- (디지털) 디지털 부문의 발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발전전략과 대통령 국정과제 등에서 ICT 발전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높은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유망함. IT 파크, 전자정부 사업, IT 관련 교육·인력 연수, 여러 산업 부문의 디지털화 등에서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이미 한국의 KT 자회사가 현지에 진출하여 인터넷 사업·스마트전력관리 구축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기타) 온실 재배 확대 등 현대적 인프라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 부문, 풍부한 면화를 토대로 수출산업으로의 발전을 시도하는 섬유산업 부문 등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유망함.
- 우즈베키스탄은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광물 채굴과 함께 광물 가공 분야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광물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 주요 광물이나 희토류 등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공급망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발전전략과 대통령 국정과제를 통해 교육·보건·환경·IT 부문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문에서의 협력이 매우 유망한 것으로 평가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 중앙아시아 주요 개발협력대상국인 우즈베키스탄과 교육·IT·보건·환경 등 다양한 개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음.
- 이미 교육 부문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는 동시에 헬스케어 등 보건 부문과 도시환경 개선 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참고 문헌 >

강봉구. 「우즈베키스탄 ‘마할라(mahalla)’ 제도의 개혁과 성격 변화」. 『대한정치학회보』. 2008. vol.16. no.2

코트라.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2022.

DIGITAL ECOSYSTEM COUNTRY ASSESSMENT (DECA) Uzbekistan JANUARY 2022. USAID.

IEA. Uzbekistan 2022 Energy policy review.

CONCEPT NOTE for ensuring electricity supply in Uzbekistan in 2020-2030

“Address b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H.E. Mr. Shavkat Mirziyoyev to the Oliy Majlis and the People of Uzbekistan” <https://president.uz>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https://www.aljazeera.com>

<https://thediplomat.com>

<https://central-asia.news>

<https://www.theguardian.com>

<https://uz.sputniknews.ru>

<https://www.ankasam.org>

<https://trade.ec.europa.eu>

<https://miit.uz>

<https://strategy.uz>

<https://www.greencarcongress.com>

www.ceicdata.com

<http://inozpress.kg>

<https://e-cis.info>

<https://www.stat.uz>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https://e-gov.uz>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

<https://www.enerdata.net>